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11세기, 채색 삽화, 아르메니아 정교회, 예루살렘, 이스라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  
(루카 12,20-21)

**[제1독서]** ..... 코헬 1,2; 2,21-23

**[화답송]** ..... 시편 90(89),3-4.5-6.12-13.14와 17  
(◎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끌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 콜로 3,1-5.9-1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 루카 12,13-21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23] 천년도 당신 눈에는
  - 봉헌성가: [38] 행복하여라
  - 성체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20] 어두움을 밝히소서

##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때에<sup>13</sup>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14</sup>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sup>15</sup>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sup>16</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sup>17</sup>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sup>18</sup>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sup>19</sup>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sup>20</sup>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sup>21</sup>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 성화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신앙의 견고함을 상징하는 바위에 앉아 앞에 서 있는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그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론을 하듯이 부자 청년은 한쪽 손을 들고서 뚫어지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11세기, 채색 삽화,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스라엘

〈정웅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 †묵상

오늘 제1독서는 재산 추구의 허무함을 들려줍니다. 세상의 일은 실체가 없고 갑자기 사라지며,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헛된 것이므로, 가난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권고합니다. 뜬구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지니는 것, 곧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참된 존엄을 이루는 모든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엄과 참된 기쁨의 원천이지만, 물질적인 재산의 추구는 세상의 많은 죄악과 불의 그리고 무질서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물질적인 재산의 추구에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과의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다음, 주님께서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곧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비유를 통하여,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비유에서,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둔 부유한 사람의 죄는 재물에도 그의 장래를 보장하는 관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신의 재물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모은 죄인입니다.

그는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고, 자신의 삶에 이기주의적 착취밖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열려 있는 자신의 삶과 마음을 유지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필요함이나 부족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태 17,1-2).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은 공관 복음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 말씀에 따른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일을 기리는 축일이다.

이 축일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의 40일 전에 지낸다. 교회의 전승에 따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0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 주시고자 거룩한 변모의 표징을 드러내셨다. 1457년 갈리스토 3세 교황이 로마 전례력에 이 축일을 도입하였다.

## 2019년 레지오 마리아 동중부 피정



본당 레지오 마리아 하늘의 문 꼬미시움 (단장 정성화 루시아)은 지난 7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제9차 미 동중부 레지오마리아 피정을 가졌다. 워싱턴 DC 가톨릭대학에서 열린 피정에는 워싱턴 한인천주교회와 볼티모어 한국순교천주교회를 포함한 하늘의 문 꼬미시움 산하 6개 한인천주교회에서 총 96명의 레지오 단원이 참가했다.

피정 첫 날인 금요일에는 목주 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가톨릭 대학에서 교회법을 공부하는 이상진 아모스 신부(서울대교구)의 환영사와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 신부는 사도 바오로를 중심으로 한 총 5개의 강의를 통해 사도 바오로의 생애와 선교, 가르침, 영성, 그리고 신학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평생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 사도 바오로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의 열정적인 선교사업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을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요일 제4강의에서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 (동중부 레지오 마리아 지도신부)는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에 대하여 강의했다. 이번 피정에는 방명준 라우렌시오 전임 보좌 신부도 방문하여 레지오 단원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고해성사도 주셨다.

참가자들은 매일 하루를 성무일도와 아침기도로 시작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성체조배와 개인 봉헌으로 장미를 봉헌하며 성모님께 대한 사랑과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다짐했다.

파견미사에서 이상진 아모스 신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겠다”고 말씀하셨다. <글: 김병국 다윗(꼬미시움 부단장) / 사진: 전용진 라우렌시오>

### 양유정 카타리나 (성 정 바오로성당 소속 구원의 어머니 pr.)

“성체를 모실 때 가슴에 울컥함이 몰려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긴 가시밭길을 지나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맞이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으면서 평생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아 앞으로는 주님만을 믿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 백광열 야고보 (랄리성당)

“처음으로 참가한 이번 피정을 통해 저희 꾸리아 분들과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성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갑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레지오 단원들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ANDREW CHOI**  
Rising 9<sup>th</sup> grade

I've always wanted to be and was excited to be a part of CYO and now I am! Without a doubt, my first summer camp was amazing and didn't let me down! I am also excited about all the other upcoming events.



**CHRISTINE CHOI**  
Rising 10<sup>th</sup> grade

It was my first time going to the CYO summer camp and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for me. I was able to meet a lot of new people and make cherishable memories through God. At first, I was a little bit hesitant to go but now I want to recommend this camp to everyone!



**ROBIN HWANG**  
Rising 10<sup>th</sup> grade

As my first CYO camp ever, this experience was nothing short of amazing. I managed to have so much fun during praises, activities, and meals with other people of the church. Not for a while have I felt like I belonged so comfortably in a community. No other experience has helped me bond so smoothly with my fellow peers in the same way CYO camp has done so for me. This year's camp was the perfect first impression for me and I'll be sure to go every year afterward.



**CATHERINE CHOI**  
Rising 10<sup>th</sup> grade

I'm the oldest of my siblings and I've always wanted an unnie or an oppa and I think I have both now, not one but many :). I'll never regret going to this camp and it's just so much more than you imagine.



**ERICA SHIN**  
Rising 10<sup>th</sup> grade

This year's CYO camp was honestly such a great experience. Everybody bonded through many activities like team games and praise. Every moment I spent with friends was cherished as well as spending time with my teammates I had never talked to before. I will definitely go again next year and I hope many others come as well.



**ANDREW KIM**  
Rising 10<sup>th</sup> grade

I really loved how I got to get close with a lot of new people because of the random groups. My group became really close through all of the activities and I'm really thankful to God that I got to be with them. The most fun part was probably praise, and I really loved the food. SSYS has amazing concerts and the kitchen team pulled through with the amazing meals. Overall, this camp was something I'll remember forever and I will definitely go again next year.



WELCOME TO



# CYO CAMP 2019



Jul 25 - 28, 2019 PRINCE WILLIAM COUNTY PARK



**“Let us love not in word or speech  
but in deed and truth” (1 John 3:18)**

본당 CYO 여름 캠프가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Prince William's Camp Site에서 열렸습니다. CYO 여름 캠프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Let us not love in word or speech but in deed and truth”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며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동안, 학생들이 행복해 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봉사진의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잘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신 강 신부님, 이희준 교감선생님과 CYO 교사진, 라파엘과 로고스 봉사자들, 맛있는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캠프에 와주신 청년사도회와 백 신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JUSTIN CHOI, CYO teacher

# 18<sup>TH</sup>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4, 2019

## Jesus teaches us not to be greedy



<오마리아 그림-바오로말 콘텐츠>

In today's Gospel reading, a man tells Jesus that his brother is being unfair to him. But Jesus knows that the man is just being greedy, so He

tells him the parable of the rich farmer. One year he had such a good harvest that he couldn't fit it all into his barns. He tore down his old barns and built new ones, so that he could store his food for many years. But just when he thought he would be able to rest and enjoy his food, God told him that he would die.

This parable is a warning against being greedy. **Jesus is not saying that we should not save some food or that we shouldn't save our money.** He is just telling us to remember that we are going to die one day, and then everything we saved is going to be useless for us. **He wants us to use the things we have wisely, but not be too attached to them.**

Think of something that is really special to you. How would you feel if you lost it or it was taken away? Do your feelings show that you care too much about things? Try to think of your belongings in such a way that if you lost them you wouldn't be too upset. After all, none of your stuff is going to matter to you when you die!

<<https://www.thekidsbulletin.com>>



<바오로말 콘텐츠>

## ○ 성모승천 대축일 8월 15일

8월 15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 축일이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이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 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이다.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8월 15일(목) 오후 8시

## ○ 울뜨레야 회합



꾸르실료는 지난 26일(금) 제331차 회합을 가졌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 마음속의 빗장을 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며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019년 하반기 일정 논의와 친교 시간을 가진 후 참석하지 못한 꾸르실리스파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양팔 기도를 바쳤다.

## ○ 교육부 주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세미나



교육부(부장 안윤민 바실리오) 주관으로 지난 28일(일) 열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세미나'에 백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데이비드 강 대표(DK Health)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와 자격 요건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 ▶ ANNOUNCEMENT

#### Registration Service for SPC Sunday School

- **When:** 8/4-8/25(Sundays), 10am-11:20am, 12:40pm-1:30pm
- **Where:** Hasang Bldg. Office
- **Registration Fee:** \$80/student
- **Ques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8월 15일(목) 오후 8시
- 성모 승천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2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8월 4일(일) 오전 11:30(B-1,2)

**3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8월 4일(일) 오후 1시(B-1)

**4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미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8월 9일) 오후 7:30  
미사 후 묵주기도

**5 공동체 기도회**

- 일시 : 8월 10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6 단체장 회의**

- 일시 : 8월 11일(일) 오전 11:30(B-3,4)

**7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8월 11일(일) 오후 1시(B-3,4)

**8 2019 - 2020년도 주일학교 등록**

- 신청 : 8월 25일(일)까지 10시 미사 후, 하상관 로비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9 2019 - 2020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 학사 일정 : 2019년 9월 7일 - 2020년 5월 9일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시)
- 입학 대상 : 유치부(K) - 12학년
- 모집 인원 : 선착순 180명
- 학비 : 첫째 자녀 \$490, 둘째 자녀 \$450, 셋째 자녀 \$400
- 등록 : 하상관(8월 25일까지 / 10시 미사 후)  
우편접수 가능(성당 웹사이트 참조)
- 문의 : 교무실 (703)968-3070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www.masstimes.org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 제80차 예비자 영세 일정, 종합교리 및 찰고**

- 종합교리 : 8월 20일(화), 8월 21일(수) 오후 8시(하상관)
- 찰고 : 8월 22일(목) 오후 8시(하상관)
- 영세 및 견진식 : 8월 23일(금) 오후 7:30 미사 중
- 환영식 : 8월 25일(일) 오전 11:30(B-1,2)
- 문의 : 원철희 토마스 (703)203-0332

**11 빠뜨리치안회 첫 모임**

빠뜨리치안회는 가톨릭 신자로서 갖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월례 모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8월 25일(일) 오후 2시, 친교실
- 주제 : 묵주기도
-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교우분들
-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304-2129

•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

**복음화 지향: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인 가정**  
가정이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언제나 더욱 '참된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The Pope's August Prayer Intention**

**Evangelization:** That families, through their life of prayer and love, become ever more clearly "schools of true human growth".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받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4일(일)	연중 제18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5일(월)	연중 제18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6일(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7일(수)	연중 제18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바오로 소공동체(오후 8시)
8일(목)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9일(금)	연중 제18주간	평일미사/성소와 성소 후원회를 위한 미사(오후 7:30), 바오로 형제회 모임(오후 8시), 25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오후 8시)
10일(토)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8월 11일(일)	연중 제19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단체장 회의(오전 11:4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8주간 : 시편 115-123, 2 코린 7-8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8일(목) 오후 5:00-6:00  
8월 9일(금) 저녁 8:00-9:00  
8월 11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c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15): 이슬람을 둘러보낸 역사의 현장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7월 28일(연중 제17주일)

주일헌금	\$7,629.64
교무금	\$9,875.00
교무금(크레딧카드)	\$2,410.00
특별헌금	\$400.00
2차헌금	\$0.00
<b>합계</b>	<b>\$20,314.64</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분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벌바라),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벌바라), 김만환(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지(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냐),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렐),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우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헬(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호전),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경태 요셉 703-785-4494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챌들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아리랑시니어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HOP 건너편) 703-543-6008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703-231-6030 데이케어 703-819-0360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스킨 스튜디오</b>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 (안젤라) 703-507-005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알렉산드리아 병원 근처 703-679-8959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Commercial 김준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글로벌 가정의학과</b> 방문진료, 무보험 환영 윤명희 (헬레나), FNP 703-935-9226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CLARIUM Education</b> 교육, 대학 진학 703-732-5671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타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메디케어, 생명보험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드립니다.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주보를 통해 교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b>광고 접수중!</b>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b>주일 저녁 6시까지</b>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